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

유 비+

(성균관대학교)

김 기 현++

(성균관대학교)

[요약]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진로발달은 한국 사회적응과 사회적 배제의 완화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요인이며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을 고취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진로정체감발달과 연관된 요인으로써 차별, 우울, 자존감의 관계를 한국인 부모를 둔 비 빈곤 청소년 및 빈곤 청소년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첫째, 변수들의 평균분석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비 빈곤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둘째, 경로분석과 다중집단 분석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차별경험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우울과 자존감을 매개하는 영향력 역시 나타냈다. 그러나 비 빈곤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들의 경우는 차별이 우울과 자존감을 매개하는 효과만을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주제어: 중도입국 청소년, 진로발달, 진로정체감, 차별, 우울, 자존감

^{*}본 연구는 2013년도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S-2013-0873-000)

^{**} 본 연구는 2014년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발표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근래에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연관된 여러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로 동남아지역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의미해왔던 기존의 다문화 가족 범주 속에 새로운 입국 경로와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청소년들은 타국에서 출생과 성장을 하던 중 외국인 부모의 한국 내 취업 및 재혼 등과 연계되어 입국한 이주민들로서,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이하 중도입국 청소년)이라 불린다(조혜영·양계민, 2012). 이들의 숫자는 외국인 출입국 신고 기준으로 6천 명 정도지만 미신고현황 등을 고려하면 1만 명 정도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그 증가폭역시 해마다 크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그러나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증가에 비해 이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며, 이를 도울 수 있는 우리사회의 지원체계는 빈약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유수의 보고 서들에 따르면(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낯선 가족 구성원들의 조우에서 오는 부담감,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한 외로움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공교육제도에 포섭되지 못한 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교육공백과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법적 보호의 상실 등을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문화, 제도적 어려움들이 작게는 한국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크게는 향후 다양한 사회활동들에 온전한 참여를 방해받는 사회적 배제의 조건 (Pierson, 2003)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다문화 사회라 불리는 여러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주목해왔던 부분으로(Green, 1994), 사회적 배제의 심화로 인한 특정 집단의 고립은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통합을 분열시키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진행과정은 정치·경제·문화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지는 탓에, 사회적 배제의 완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지되어 온 바이다(Watts, 2001).

특히 다면적 접근방식 중 하나로써 청소년들의 직업과 진로발달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현대사회에서 진로는 일반적인 발달과업의 측면에서 자아실현을 돕는다는 점은 물론 뚜렷한 목표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돕는다(Morse and Weiss, 1968). 또한 사회적 배제의 여러 측면 중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삶의 기준(standard of living)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있어 직업과 진로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의 제공과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은 사회적 배제의 완화와 사회통합을 돕는 기능을 가진다(Watts, 2001).

물론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진로선택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진로발달 도모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중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이해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인지와 선택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이러한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진로선택이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 함양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고 설명한다(Holland et al., 1980). 진로와 직업은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기에, 자신의 주관과 확신이 없거나 타인의 의견에만 치우친 진로선택은 자아실현과 소명의식의 달성을 어렵게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진로발달의 목표 중 하나인 삶의 만족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및 진로발달의 도모함에 있어도 진로정체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청소년 진로발달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의하면 개인을 둘러싼 거의 모든 요인들과 상관이 있다. 상술하면 인종과 성별, 가정환경, 사회적지지, 교육수준과 차별의 경험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Lent et al., 2000: Diemer and Blustein, 2007)에서부터 우울, 불안, 자존감과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적인 심리·정신건강 요인들(Gushue et al., 2006: Koumoundourou et al., 2012)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그렇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은 어떠한가? 상기한 요인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진 로정체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도 상당 부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과 같이 정주지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연관된 요인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이 가진 여러 고유한 특성들로 인한 차별의 경험은 사회적 배제를 당하는 집단이나 개인들 이 느끼는 부당한 인지와 감정들을 적절히 나타낼 수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소수집단들에게는 정주지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 등이 해당사회에서의 직업선택 및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Adams et al., 2005). 더불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경험한 이주는 단순한 개인적 신상변화가 아 닌 생활세계 전반의 심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써(Portes and Rumbaut, 2006), 이들의 진로정체 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신건강 요인들 역시 사회적 요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령 우울과 자존감 등은 이주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 대표적인 심리·정신건강 요인들인데(경기도가 족여성원구원, 2012), 이들은 그 자체로도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며(신효정·이문희, 2011: 최윤미·이문희, 2011) 차별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요인인 것이다 (Tuner et al., 1979).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의 관계는 현재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모를 둔 한국 태생의 비 다문화 청소년 집단(이하 일반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접근되어야할 필요성도 있다. 개인의 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은 상당부분 사회적으로 정립되며 사회변 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Erikson, 1963; Lent et al., 2000).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현재 일반청소년들 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라는 맥락에서 기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주라는 특수한 경험을 한 대상이자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들이다. 같은 시각에서 보자면 일반 청소년들 역시 소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 하위집단들이 포함된 대상이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다양한 일반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일반적 속성을 공유 함에도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 우울. 자존감 등의 관계에서 상이한 구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주제는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는 그간 몇몇 연구들(오성배·서덕희, 2012; 조혜영·양계민, 2012)에서 언급되었으나 진로정체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 역

시(김희수 외, 2005; 신효정·이문희, 2011; 최윤미·이문희, 2011 등) 양자 간의 비교를 통해 진로정체 감 발달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들의 진로정체감과 차별, 우울, 자존감의 관계가 한국 일반 청소년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진로발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정체감

진로는 직업적인 성취는 물론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역이며(Erikson, 1963) 청소년기는 진로와 직업을 논의할 때 매우 중요한 시기로 거론된다. 직업과 진로가 주변의 강압에 의해 정해지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의 진로와 직업은 상당한 자율성이 있으며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정립하면서 삶의 만족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수단이 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목표의식을 제공하기도 한다(Andersen, 2001).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향후 자신이 사회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한 목표의식은 현재 자신이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와 직업의 선택은 단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한 과정 속에서 변화한다. 따라서 그 과정은 진로발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된다. 진로발달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며 이뤄진다. 여기에는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려와 탐색을 시도해보는 진로탐색, 이를 통해 고려된 직업에 대해 확신 및 집중하는 진로헌신, 진로헌신과 탐색으로의 재탐색을 하는 진로 재고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Porfeli and Lee, 2012). 이 과정들은 단순히 선형적으로 발달하거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Porfeli et al., 2011). 다만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로결정 유예기간을 넘어 지속적으로 진로탐색에만 몰두하는 것은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진로발달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고려하는 진로와 직업에 집중하는 것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으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이 깊을수록 진로발달은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다(Super, 1980).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해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계획과 신념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진로정체감과 연관이 깊다고 평가된다(Holland et al., 1993).

진로정체감의 수준은 자신의 직업적인 목표와 흥미, 재능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뜻한다(Holland et al., 1980).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충분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선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과 사고의 발전은 그만큼 느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Super et

al., 1996). 실제로도 Hirschi와 Hermann의 연구(2012)나 Wanberg와 Muchinsky의 연구(1992) 등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은 삶의 만족감과 연관성을 나타냈고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직업적 인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진로발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의 발달 역시 다양한 요인과 조건을 바탕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 전반을 거쳐 이뤄진다 (Skorikov and Patton, 2007). 타인들의 의견에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 초기청소년기 (Costanzo and Shaw, 1966)에서부터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어떠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집중을 촉구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재고 역시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중학교 진로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평가되는 만큼(장덕희·목진휴, 2011), 초기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은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이종화·김현숙, 2012).

2)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맥락적인 접근: 차별과 진로정체감

일반적으로 진로와 직업은 개인이 담당하는 역할이며 상당부분 자신의 흥미와 관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선택과정에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들이 성장과정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Lent 외(2000)의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한다. 이 이론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토대로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이는 진로 발달과 관계된 개인적 요인들의 영향을 다루면서도 교육이나 직업기회 등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회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는(Blustein et al., 2005) 장점이 있다. 또한 관련 연구들 (Flores and O'Brien, 2002: 정미예·조남근, 2011 등)에서 진로목표나 행동이 수립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로써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높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먼저 진로에 대한 흥미나 목표, 행동 등의 발달이 개인들의 자기효능감이나 학습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음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진로발달 요인은 소위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이라고 표현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의 성, 인종, 민족, 장애정도 등의 개인의 고유한 속성들이고 또다른 하나는 무형의 잠재적인 요인들과 구조적인 맥락을 말한다. 후자에는 사회적인 계층화의 정도, 차별의 경험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성질(contextual affordance)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즉, 특정한 진로와 직업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영향력으로 인해 종전과는 다른 직업과 진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같은 이론의 시각에서 Marko와 Savickas(1998), Blustein 외(2005) 역시 사회구조적 맥락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한다. 개인이 진로나 학업발달을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지지와 긍정적인 모델링(modeling),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과 같은 사회적인 맥락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회의 구조적인 맥락은 모든 청소

년들에게 양질의 자극을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은 진로발달과 결정이 온전하게 자신의 흥미와 노력, 계획으로 이뤄지는 것을 저해하며(Blustein et al., 2005) 이는 진로발달의 도모에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낸다.

차별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의 대표적인 예이다. 차별이란 성, 인종, 외모 등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사회적 폭력의 한 유형이다(Sanders-Phillips, 2009). 그리고 그 인지는 절대적, 상대적인 측면 모두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사회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인지가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Heider, 1958). 또한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기회의 박탈부터 일생생활 내 유, 무형의 의사소통, 사회경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의 특성과 잘 부합되는 경험이다. 이는 앞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기능으로 설명한 사회적 이동성과 극명하게 대치되며 이를 저해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Hotchkiss와 Borow(1996), Rojewski와 Kim(2003) 등의 논의를 살펴보면, 차별은 중국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이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목표달성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무기술연마 등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열망했던 진로와는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비슷한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동종 직군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행동유도성이 설명하는 바와 유사한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차별은 진로발달은 물론 여러 적응영역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Geronimus 외(2006)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지속적 차별의 부하효과를 설명하는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됨은 물론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사나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대로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차별 관련연구들은 자신이 소속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열망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경험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lustein et al., 2005; Flores and O'Brien, 2002; McWhirter et al., 2007).

(2) 정신건강과 진로정체감: 우울 및 자존감

진로발달에 있어 앞서 논의한 사회적 맥락 이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는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진로발달 개념이 정체성(identity)이라는 틀에서 차용된 개념이기 때문이다(Wallace-Broscious et al., 1994). 넓은 시각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진로발달의 관계를 논의하는 연구들은 우울과 불안 및 자존감 등과 같이 자기평가에 강한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정서 수준들이 향후의 진로선택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Hirschi, 2012). 또한 정신건강 수준은 차별의 경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개인은 사회적 배제를 피하고 일정부분은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차별은 이를 저해함으로 우울을 야기하고 자존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Turner et al., 1979)

우울감이 높다는 것은 대표적인 부정적 심리·정신건강의 상태이다. Beck(1972)에 의하면 인지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나 자신과 세계, 미래에 대한 왜곡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인지로 거론된다. 이 왜곡은 수동적이고 비관적인 사고와 연관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기쁨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과 사고, 감정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킨다. 부정적인 인지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이와 관련이 있다(Saunders et al., 2000). 진로정체감의 발현에는 특정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목표와 관련된 사고 및 행동이 조합되어야 하는데(Holland et al., 1993), 우울은 크게 진로문제에 대한 극복행동과 진로결정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진로를 결정하고 집중하는 과정은 개인차를 감안하더라도 결코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진로와 관련한 문제나 과업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데, 우울을 통한 인지왜곡은 바로 이러한 문제극복행동의 발현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차례로 진로 결정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진로결정은 소명의식 및 향후의 거취와 관련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무상감을 야기하는 우울은 진로결정을 유보하거나 배제시키기도 한다.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진로성숙,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다는 국내외의 선행연구결과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수 있다(신효정·이문희, 2011; 최윤미·이문희, 2011; Strauser et al., 2008).

반대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 능력, 중요성과 같은 개인적 특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결정과 판단에 대한 결정력과 연관이 깊기에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과정은 우울의 경우와 유사하다. 자존감은 우울과도 부적인 관계가 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사람은 앞으로의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왜곡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Rosenberg et al., 1989). 더불어 자기개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진로발달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며 이는 명확한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다. Super(1980)에 의하면 직업선택은 개인의 자아를 직업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전환은 개인의 목표 확립 및 결정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개념을 투영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목표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Burton and Parks, 1994). 자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성, 진로성숙,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다는 국내·외의 선행연구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최윤미·이문희, 2011; Burton and Parks, 1994; Wallace-Broscious et al., 1994).

(3)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비교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는 크게 2가지의 이유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다양한 일반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탐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집단들이 받아들이는 차별의 효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은 해당사회에 거주하는 개인과 집단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하지만 Devine(1989)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의 구성원일수록 집단 간의 편견과 차별을 민 감하게 인식한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이 느끼는 차별의 수준과 영향력 모두가 중요함을 나타낸다(Qin et al., 2008).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선택하게 되는 진로와 직업의 대부분은 우리사회에서 정주하며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주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경험한 차별의 영향력은 일반 청소년들과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차별은 우울과 자존감, 진로정체

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며 국외의 연구에서 정주지 청소년들과 중도입국 청소년들 간의 차별 수준과 영향력은 다양한 차이와 공통점등을 보인다(Brenick et al., 2012). 즉,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이론적 관계는 양 집단에 따라 그 수준과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들의 비교에 있어서 비교 대상인 일반 청소년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주 청소년들과 정주지 국가 청소년들의 비교를 수행한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Sam et al., 2008)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직업, 빈곤수준등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Bradley and Corwyn, 2002), 이주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과 이주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가정 청소년들의 여러 발달영역의 수준들이 단순히 다문화가정이라는 범주로설명되는 것보다 소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설명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2013)와 우리사회의 일반 청소년들 역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진로영역의 발달차이를 보인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고서(2001) 역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서 가정의 빈곤수준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이 생활하는 가정은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일반 청소년들 중 보편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평가받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을 이주경험이 없는 비교집단 중 하나로 포함시킬 때 중도입국 청소년들과의 비교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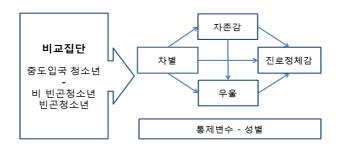
3)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기존 연구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관련 연구는 현재 오성배·서덕희(2012)와 조혜영·양계민(2012)의 연구가 존재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탐색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욕구가 높으며 이를 위해 개인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인 진로발달로 귀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지원체계들의 도움은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외연을 확대하여 진로발달과 관련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로발달과 연관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간 다문화 아동 청소년으로 주로 지칭되어 오던 결혼이주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도 다뤄지고 있다. 다만 해당연구들은 앞서 기술한 중도입국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비교, 일반 청소년들 내 소속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차이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우울, 불안, 공격성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신효정·이문희, 2011; 최윤미·이문희, 2011 등) 및 부모양육태도나 가정환경,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김희수 외, 2005; 마미

영·정태연, 2005; 엄태영 외, 2009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변수인 우울과 자존 감 등을 다루는 연구들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통해 우울과 자존감 등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장. 단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 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이주과정에서도 연관되는 대표적인 심리 정신건강 요인이기에 해당 연 구들은 정주지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일반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한다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일부 국내연구 중에는 진로장벽(유성경 외. 2006 등)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는 진로결정 및 집중과 연관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과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며 실제로 진로장벽이 높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개인이 향후의 진로발달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직 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열등감 등이 종합된 것으로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사와는 상관없 이 성, 외모, 인종 가정형편 등의 특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차별과 다소 상이한 개념 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들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써 차별의 영향력을 탐색해 볼 필요성을 상기해볼 수 있다. 결혼이주가정 자녀를 대 상으로 수행된 일부 진로관련 연구(이유경 외, 2012; 이지민·오인수, 2013; 등)들은 자기효능감과 부 모 의사소통관계 등의 개별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일반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 들과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출생지·정주지의 차이 및 이주경험의 유무로 구분되는 대상이기에 이들 연 구가 직접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다문화 배경을 가진 정주지 청소년 집단인 결혼이주가정 자녀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의의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시각에서 본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차별의 수준과 정신건강 및 진로발달 관련이론의 시각에서 본 우울 및 자존감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 관계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빈곤가정 청소년, 비 빈곤가정 청소년집단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주제를 다루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 서울 구로·대림 및 인천 지역 내의 다문화 청소년 재학비율이 가장 높은 일반 중학교들 6곳과 추가로 설문한 대안학교 2곳, 총 8곳의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대상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학교 내 중도입국 청소년이 소속한 학급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빈곤가정 학생 및 비 빈곤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후 동일 지역의 중도입국 청소년 대안학교를 추가 섭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일반 청소년들을 구분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속한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여부로써,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확인하였다.

연구 자료는 아래의 측정도구들을 포함하는 설문지로 세계보건기구(WHO)(2014)에서 제안하는 문항 번역 과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교수 2인 및 번역 전문가가 역 번역 및 신뢰도·타당도 확인 작업을 통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설문응답 시 발생하는 언어적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의 원어민 교사나 한국어가 능통한 석·박사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참해 이를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586부로 중도입국 청소년은 97명, 일반 청소년 489명(비 빈곤가정 청소년 414명, 빈곤가정 청소년 75명)이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1) 진로정체감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외(1980)의 MVS(My Vocational Situation) 척도를 번안한 김봉환(1997)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선택이 나에게 매우 혼란스럽다'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 '다양한 직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나에게 어떠한 직업도 강하게 와 닿지 않는다' 등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나 확신의 정도를 측정한다. 응답범주는 예(=0), 아니오(=1)의 2분형으로 합산점수가 높다는 것은 진로정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 차별

청소년들이 인지한 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Yoo 외(2010)의 SABR-A(Subtle and Blatant Racism Scale for Asian American) 착도를 수정·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이 착도는 10문항으로 '의심반거나' '무시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등의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의 차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장점이 있다(Yoo et al., 2010).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착도이며 합산점수가 높다는 것은 인지된 차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SABRA 착도를 '나와 우리 가족의 어떤 특성(성별, 다문화여부, 국적, 피부색, 외모, 성적, 성격, 가정환경)으로 인해 의심 받은 적이 있다' '나와 우리가족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 무시당한 적이 있다' '나와 우리가족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 놀림당한 적이 있다' 등으로 수정·번안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a = 88이었다.

(3)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최상진 외(2001)가 개발한 한국판 우울척도(CES-D)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응답범주는 4점 척도이다. 합산점수가 높은 것은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a = .92였다.

(4)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이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genberg의 Self-esteem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한 안재진·김 지혜(2004)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응답범주는 4점 척도이다. 합산점수가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5) 통제변수

청소년의 진로정체성과 우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로써 성별을 고려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별은 우울,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아미, 2002). 이에 본 연구도 청소년들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남자=0, 여자=1로 부호화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일원 분산분석을 통해 각 집단 청소년들의 차별, 우울, 자존 감, 진로정체성 수준의 차이를 탐색하고 집단별 상관분석으로 각 변수들 간 관계의 방향성과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체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후 다중집단 분석을 수행하여 전체 경로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집단 간 비교에서도 동일한지를 확인하였다. 다중집단 분석 방식은 amos 19를 이용

해 완전구조동일성 확보와 부분구조동일성 확보과정을 거쳤으며(Kline, 2011), 이후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성을 제약한 기저모형과 각 경로의 제약을 풀어준 모형을 비교하며(df=1) 그 차이가 유의한 지를 확인하는 방식(김재엽 외, 2010)을 따랐다.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성립과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bootstrap방식을 이용한 bc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소년들의 집단별 성별 비율은 중도입국 청소년 남자 47명(48.5%), 여자 50명(51.5%) 비 빈곤 청소년 남자 217명(52.4%), 여자 197명(47.6%) 빈곤 청소년 남자 43명(57.3%), 여자 32명(42.7%)로 대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만, 연령에 있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중학생의 재학연령보다 높은 평균 16.9세를 보였는데 이는 입국 후 장·단기의 공교육공백 기간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출신국적은 중국이 76명(78.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5명(5.2%), 몽골 4명(4.1%), 필리핀 3명(3.1%), 러시아 2명(2.1%)으로 우리사회에 중국인 부모를 둔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장 많다는 선행연구결과(조혜영·양계민, 2012)와 일치한다. 한국 사회거주기간의 경우는 1년 미만 22명(22.7%), 2년 미만 33명(34.0%), 3년 미만(18%), 4년 미만 6명(6.2%), 5년 미만 3명(3.1%)으로, 초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도입국			일반청소년			
	범주	청소년		비 빈근	곤(가정)	빈곤(가정)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7	48.5	217	52.4	43	57.3	
	여자	50	51.5	197	47.6	32	42.7	
연령(평균)	16.9	9세	15.	1세	15.5세		
	대한민국	0	0	414	100	75	100	
출신 국적	중국	75	78.4					
	러시아	2	2.1					
	몽골	4	4.1					
	베트남	6	5.2					
	필리핀	3	3.1					
	기타	7	7.2					
	한국출생	0	0	414	100	75	100	
치그	1년 미만	22	22.7					
한국	2년 미만	33	34.0					
거주기간	3년 미만	18	18.6					
	4년 미만	6	6.2					

	5년 미만	3	3.1				
	5년 이상	8	8.2				
	결측값	7	7.2	0	0	0	0
합	·계	97명	100%	414명	100%	75명	100%

2) 차별·우울·자존감·진로정체감의 관계

(1) 집단별 분산분석

각 집단의 차별·우울·자존감·진로정체감의 평균점수는 전반적으로 비 빈곤청소년, 빈곤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순서로 자이존중감과 진로정체성 수준이 높았고, 차별과 우울 수준이 낮았다. 다만 분산분석 결과는 이와 약간 상이하다. 먼저 Levene 통계량은 각 변수 모두 유의확률 p〉.050으로 동질성 가정을 충족시켰음을 나타냈다.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차별의 유의확률이 각각 p=.279, p=.080이며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p=.001, p=.003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비교를 위해 Scheffe검정을 수행한 결과, 자존감의 경우에는 비 빈곤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간의 평균차이 1.78점, 유의확률 p〈.010 수준에서 양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울의 경우에도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변수별 분산분석 결과

		スロの)ユ		일반	청소년		ov.ono	ANOVA	
		중도입국	비빈곤		빈곤		Levene		
 차별	M	16.81	15.13		16.06	2.45	7 (n= 085)	F= .080	
사일	SD	8.11	8.81		6.48	2.4/	(p=.085)		
우울	M	36.76	33.48		34.13	00/	(m= 275)	01 **	
十五	SD	6.86	8.71		7.75	7 .904	(p=.375)	F= 5.91**	
 자존감	M	27.58	29.37		28.12	171	(12 012)	F= 7.02**	
사근심	SD	D 4.42 4.72			4.57	7 .1/1	(p=.843)		
진로	M	7.70	8.53		8.56	1 11	(m= 227)	F= 1.28	
정체감	SD	4.96	4.71		3.51		(p=.327)	F= 1.20	
Scheffe	e 검증	비빈곤 - 중	도입국	-입국 빈곤		빈곤 - 중도입국		곤 - 빈곤	
차	차별 -1.68			75		.93			
우	우울 -3.38**		-2.62			.65			
자큰	존감	1.78	**		.53			-1.25	
진로전	성체감	.85		.86		.86		.02	

(2) 집단별 단순상관관계 분석

전체 청소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변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은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와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집단별 상관관계분석에서도 동일하였다. 종속변수인 진로정체성의 상관관계를 집단 별로 상술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차별 $(r=-.453^{***})$, 우울 $(r=-.533^{***})$, 자존감 $(r=.433^{***})$, 비 빈곤 청소년의 경우는 차별 $(r=-.114^*)$, 우울 $(r=-.308^{***})$, 자존감 $(r=.394^{***})$, 빈곤 청소년의 경우는 차별 $(r=-.241^*)$, 우울 $(r=-.512^{***})$, 자존감 $(r=.480^{***})$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중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차별과 진로정체성간의 상관은 다른 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상관의 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langle 표 3 \rangle 에 제시하였다.

〈丑 3〉	변수별	단순상관관계분석
-------	-----	----------

전체 청소년									
차별		1							
우울		.316**		1					
자존감		234**		543**		1			
진로정체	감	2 00**		371**		.413**		1	
중도입국 청소년			비 빈곤	(상단) •	빈곤(하단)	청소년			
차별	1				1	.265**	190**	114*	
우울	.389**	1			.474**	1	562 ^{* *}	308**	
자존감	272**	428**	1		357**	592**	1	.394**	
진로정체감	453**	533**	.433***	1	241*	512 ^{**}	480**	1	

p<.05*, p<.01**

(3) 전체모형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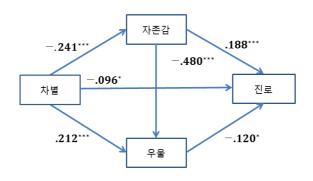
이론적 검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경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의 부합도는 절대적합지수($\chi^2 = 1.795 \cdot p = .180$, RMSEA = .037)와 증분산적 합지수(GFI = .999, CFI = .998 TLI = .978)로써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경로분석의 결과 는 상관관계 분석과 유사하다. 청소년들의 통계수준 p<.05에서 차별→진로(정체감)경로 및 통계수준, p<.001에서 차별→우울과 자존감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고, 우울→자존감의 경로 역 시 통계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또한 자존감→진로경로와 우울→진로경로 도 각각 p<.001와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경로분석의 결과는 〈표 4〉,〈그림 2〉에 제시하 였다.

	〈丑 4〉	〉 전체	청소년	경로분석
--	-------	------	-----	------

경로	표준화 계수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차별 → 자존감	241***		241
차별 → 우울	.212***	.116	.327
자존감 → 우울	480***		480
자존감 → 진로(정체감)	.188***	.058	.246
우울 → 진로	120 [*]		120
차별 → 진로	096 [*]	085	180
2			

모형적합도 - χ^2 =1.795(df=1 p=.180) GFI=.999 CFI=.998 TLI=.978 RMSEA=.037

p<.05*, p<.01**, p<.001***



〈그림 2〉 전체 청소년 경로분석

(4) 다중집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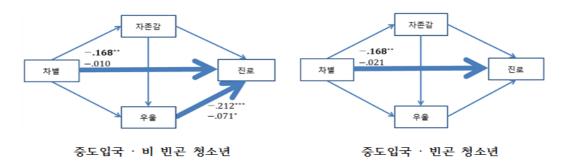
경로분석 내 개별 경로들을 중도입국 청소년과 비 빈곤 청소년, 빈곤 청소년 간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분석의 기본가정이라 할 수 있는 구조동일성 확보는 각 집단에서 완전 혹은 부분 구조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과 비 빈곤 청소년 집단은 집단 간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한 모형과 제약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두 모형의 χ^2 차이는 24.7로써 유의수준 .05의 임계치(df=8, χ^2 =15.5)를 초과하여 완전한 구조동일성 모형은 기각이 되었다. 이에 부분 구조동일성 확보를 위해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차별→진로, 우울→진로의 경로계수의 제약을 풀어준 모형을 비교하였고, 두 모형의 χ^2 의 차이가 유의수준 .05의 임계치(df=6, χ^2 =12.6)를 초과하지 않아 부분구조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도입국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 집단은 모든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과 제약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두 모형의 χ^2 차이가 7.96으로 유의수준 .05의 임계치(df=8, χ^2 =15.5)를 초과하지 않아 완전구조동일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수행한 다중집단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도입

국 청소년과 비 빈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차별→진로와 우울→진로의 경로에서 기저모형과의 χ^2 차이가 df=1의 임계치 3.84를 초과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차별→진로의 경로가 기저모형과의 χ^2 차이가 df=1의 임계치 3.84를 초과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다중집단 분석결과는 $\langle \pm 5 \rangle$ 에 제시하였다.

〈표 5〉 다중집단 분석

		χ^2	df	RMSEA	CFI	TLI	Δx^2	\triangle df
	기저모형	28.303	9	.065	.949	.950		
중도 입국	차별 → 자존감	28.289	8	.071	.946	.948	.014	1
百五	차별 → 우울	25.302	8	.071	.946	.948	.001	1
비]	자존감 → 우울	27.591	8	.066	.953	.955	2.712	1
비곤	자존감 → 진로	27.107	8	.069	.949	.951	1.196	1
전도 청소년	우울 → 진로	18.719	8	.051	.972	.972	9.584	1
생으면	차별 → 진로	17.025	8	.047	.976	.977	11.278	1
	기저모형	9.226	9	.012	.998	.997		
중도	차별 → 자존감	8.102	8	.009	.999	.998	1.124	1
입국	차별 → 우울	8.517	8	.020	.997	.991	.709	1
•	자존감 → 우울	7.969	8	.000	1.00	1.00	1.257	1
빈곤	자존감 → 진로	9.051	8	.028	.993	.982	.175	1
청소년	우울 → 진로	8.519	8	.020	.997	.991	.707	1
	차별 → 진로	4.648	8	.000	1.00	1.00	4.578	1

이후 다중집단분석결과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낸 경로를 중심으로 실제 개별 집단 내의 경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차별→진로 경로를 제외한 모든 집단의경로는 유의미하였다. 차별→진로 경로는 중도입국 청소년 집단이 (비표준화)경로추정치= -.168, 유의수준 p
 .01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 것에 비해 비 빈곤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 집단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앞선 집단별 상관관계 분석에서 모든 변수들이 진로정체성과 유의함을 나타냈지만 우울과자존감이 매개변수로 차별과 진로정체성의 관계에 투입되었을 때는 집단 별로 유의함에 차이가 났음을 의미한다. 이를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성립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보자면,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는 우울과 자존감의 부분매개효과를, 비빈곤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의 경우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각 집단의 우울과 자존감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 검정으로 bc법을활용하면 중도입국 청소년 p=.004, 비 빈곤 청소년 p=.006, 빈곤 청소년 p=.010 으로 p<.05수준에서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함을 나타냈다. 다중집단분석을 포함한 이상의 결과는 ⟨그림 3⟩으로 표시하였다.</td>



- 주 1) 실선은 양 집단 모두 유의미한 경로, 강조된 선은 다중집단분석의 χ^2 차이를 나타냈던 경로임.
 - 2) 강조된 선에 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로 상단은 중도입국 청소년, 하단은 비교 집단 청소년임

〈그림 3〉 다중집단분석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차별, 우울, 자존감 간의 관계를 한국 비 빈곤, 빈곤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통해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집단별 진로정체감과 차별, 우울, 자존감의 평균비교에서 모든 집단은 차별과 진로정체감 수준이 비슷했으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비 빈곤 청소년에 비해 우울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차별을 선행요인으로 하는 전체 청소년들의 경로분석은 이론적 배경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각 집단별 다중집단분석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차별과 진로정체감 경로는 다른 두 집단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과 비 빈곤청소년 집단에서 우울과 진로정체성의 경로는 모두 유의미했음에도 다중 집단분석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차별과 진로정체감간의 경로는 각 집단별 경로분석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는 모든 경로를 매개하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우울과 자존감을 매개로 하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간 평균분석 부분이다. 차별의 수준은 각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이주 청소년들이 정주지 사회의 청소년들보다 많은 차별을 느낀다고 보고하는 국외연구들(Brenick et al., 2012; Kaiser and Major, 2006)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는이에 대해 현재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정 속에 있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인지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숫자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 참여청소년들이 입국 초기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대다수인 점을 주목하였다. Brewer 외(1995)는 일정 규모의 집단이나 사회에서 매우 작은 규모의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다수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쟁자로 인식되지않기에 차별의 인지가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Esses 외(2001)는 노동시장과 같은 실제적인 경쟁의 장에서는 이민자 집단 등이 자신의 이익을 침범할 수도 있는 경쟁자로 인식되어 차별이 크게 인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인 중국 청소년들은 신체나 외모

등의 가시적 차이가 별로 없는 대상들이며 이들은 입국 초기자로서 주류사회에 대한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제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규모나 거주기간이 늘어난다면 차별의 인지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우울과 자존감의 경우는 이주 청소년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정주지 청소년들에 비해 심리사회적부담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국내·외 선행연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Berry, 2006; Stephan and Stephan, 2000)들과 일치하는 바이다. 이들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또래관계 및 새로운 가족관계형성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이며 정체성 이론의 시각에서 우울과 자존감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적응 지원에 있어 심리·정신건강영역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및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경로분석 부분이다. 이 결과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가 실증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나타낸다. 차별과 같은 사회적 맥락은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및 자존 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우울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는 것은 선행연구결과들(Flores and O'Brien, 2002: Hackett and Byars, 1996)과 일치하는 바이다. 우울과 자존감이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역시 국내·외 선행연구들(신효정·이문희, 2011: Hirshi, 2012)과 일치한다.

다만, 다중집단 분석을 위시한 집단 내 개별 경로들의 분석에서 다른 집단 청소년들과 달리 중도입 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우울과 자존감 이외에도 차별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았다. 즉,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시각에서 차별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것이 청소년들의 집단과 같은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나 타낸다. 이는 청소년들의 차별수준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차별의 영향력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경 험하는 차별에 대한 Outlaw(1993)의 스트레스 전이모델을 살펴보면, 차별과 같은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미비할 때. 스트레스는 그대로 전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중도입국 청소 년들이 국외의 이주 청소년들과 비교해 원 가족 해체와 분리 속에서 여러 지지체계의 미비함을 경험 할 수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바로써. 차별은 이들에게 극복이 힘든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들이 유사성을 지닐 수 있음을 거론했는데. 이들 간의 분석결과에서도 차별의 영향력이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고 사료된다. 진로 및 직업선택은 어떤 사회의 언어적·문화적 적응과 연관이 있으며 해당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 을 필요로 하기에(Miranda and Umhoefer, 1998), 토착민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게 차별은 일종의 사회적 장벽으로 인식되며 진로정체감에 더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다. 이 외에도 중도입국 청소년과 비 빈곤 청소년간의 우울과 진로 간의 경로는 두 집단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집단 분석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집단 간의 계수크기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더 컸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서 우울의 영향력이 비 빈곤 청소년들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앞선 평균분석에서 양 집단 간의 우울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났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한 본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평균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우울과 자존감의수준 차이는 이들에게 일차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로정체감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는 차별과 같은 정주지 사회의 제도적,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이들의 진로발달이나 사회적응에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는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 이주 청소년들의 적응과 발달이 개인적 능력이나 기질과 같은 특성이외에도 가족의 동반입국여부등의 이주배경 특성 및 사회문화적 특성과 정주지 국가의 이주정책 등의 제도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받는다고 설명한 Portes와 Rambaut(2006)의 종단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논의한 바처럼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적응과 발달을 위한 조건들이 적절히 충족되고 있지 못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에 따라 이들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완화를 위한 직업과 진로발달에 있어서 진로정체감이 중요하다면, 차별을 비롯한 사회구조적 맥락이 매우 중요함을다시한 번 강조해준다.

둘째,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면, 정주지 사회의 다양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차별과 같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 완화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보완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 재학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교육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재학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제도권 교육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숫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상당히 긴 교육공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도권 교육 안으로 신속히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했듯이 진로발달은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진로정체감의 단계는 고착된 것이 아니다. 개인들은 언제든지 진로재고의 단계로 돌아가서 진로를 재탐색할 수 있으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탐색, 발전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언어적 의사소통과 직업 및 진로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특성상, 양질의 진로교육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입을 소홀히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본연구에서 주목한 정신건강 변수인 우울과 자존감의 수준뿐만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심리 정서적 부분들을 다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다룬 김기현 등의연구(2013)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내에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부정적인 정서로 남아있음을 보고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 정서의 누적은 우리사회나 구성원들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며 진로발달이나 사회적응의 최종적 인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인 부분들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진로교육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고 그간 선행연구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일반 청소년 집단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울과 자존감 같은 심리정서 요인이 외에도 차별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중요함을 나타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이 요구된다. 첫째,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지지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초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일차적으로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는 가족인데, 이들은 낯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생활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지제공의 가능성이 다를수 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가진 동향의 중도입국 친구나 학교 교사 등으로부터의 지지가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지지체계를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발달은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횡단적인 측면이 아닌 종단적인 연구로서 이들의 진로발달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들은한국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점차 확대되고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진로선택과 발달영역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인 부모를 둔 일반 청소년들과 공유되는 요인이 아닌 이들만의 특징적 변화로써 향후 진로발달 연구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간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자부심을 지녀온 채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우리사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방인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은 개인적, 사회적 영역의 전 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사회적 배제의 완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향후 우리사회가 어떠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기현·이재희·홍혜미, 2013, "결혼 이주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44(1): 165-192.
- 김재엽·최지현·이효정·김기현, 2010,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성폭력 가해간 관계 분석 -성별에 따른 경로차이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31(1): 79-106.
- 김봉환, 1997, "大學生의 進路決定水準과 進路準備行動의 發達 및 二次元的 類型化",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김희수·홍성훈·윤은종,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5.
- 마미영·정태연, 2005,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자기특성이 진로결정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2(1): 5-15.
- 신효정·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청소년 학연구』, 18(7): 139-161.
- 안재진·김지혜, 2004,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3): 61-87.
- 엄태영·김교연·한복남, 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7(2): 69-85.
- 오성배·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유성경·홍세희·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837-851,
- 이유경·류재윤·방흥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이종화·김현숙, 2012, "중학교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및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급단위 진로탐색 프로그램 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191-217.
- 이지민·오인수, 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3): 193-216.
- 장덕희·목진휴, 2011,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대학생의 조기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GRI 연구논총』, 13(2): 205-225,
- 정미예·조남근, 2011,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본 대학생의 진로만족 모형", 『청소년학연구』, 18(10): 295-316.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조혜영·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최상진·전겸구·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 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최윤미·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1): 171-187.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dams, E. M., Cahill, B. J., and Ackerlind, S. J., 2005, "A qualitative study of Latino lesbian and gay youths' experiences with discrimination and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2): 199-218.
- Andersen, L. E., 2001, Social Mobility in Latin America: Links with Adolescent Schooling.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Research Department, Latin American Research Network,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A., 1972,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Medical Division.
- Berry, J. W., 2006, Acculturative Stress in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Springer US.
- Blustein, D. L., McWhirter, E. H., and Perry, J. C., 2005, "An emancipatory communitarian approach to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2): 141-179.
- Bradley, R. H., and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 Brenick, A., Titzmann, P. F., Michel, A., and Silbereisen, R. K., 2012,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by young diaspora migrants: Individual-and school-level associations among adolescent ethnic German immigrants", European Psychologist, 17(2): 105-119.
- Brewer, M. B., Weber, J. G., and Carini, B., 1995, "Person memory in intergroup contexts: Categorization versus individ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29-40.
- Burton, S. L., and Parks, A. L., 1994,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career aspirations of college-age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ocial Work Research*, 18(3): 178-185.
- Costanzo, P. R., and Shaw, M. E., 1966, "Conformity as a function of age level", *Child Development*, 37(4): 967-975.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5-18.
- Diemer, M. A., and Blustein, D. L.,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98-118.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Rev. ed.). New York: Norton.
- Esses, V. M., Dovidio, J. F., Jackson, L. M., and Armstrong, T. L., 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389-412.
- Flores, L. Y., and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14-27.
- Geronimus, A. T., Hicken, M., Keene, D., and Bound, J., 2006, "Weathering and age patterns of allostatic load scores among blacks and whit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Information*, 96(5): 826-833.
- Green, A., 1994, *The Geography of Poverty and Wealth*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University of Warwick.
- Gushue, G. V., Scanlan, K. R., Pantzer, K. M., and Clarke, C. P., 2006,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19-28.
- Hackett, G., and Byars, A. M., 1996,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he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wom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4): 322-340.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York: Wiley,

- Hirschi, A., 2012, "Vocational identity trajectories: Differences i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of well be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1): 2-12.
- Hirschi, A., and Herrmann, A., 2012. "Vocational identity achievement as a mediator of presence of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309-321.
- Hotchkiss, L., and Borow, H., 1996.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work and career development",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 281-334,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and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and signs for the selection of vocational treat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 Holland, J. L., Johnston, J. A., and Asama, N. F., 1993, "The Vocational Identity Scale: A diagnostic and treatment too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1-12.
- Kaiser, C. R., and Major, B., 2006,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perceiving and reporting discrimination", *Law and Social Inquiry*, 31(4): 801-830.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oumoundourou, G. A., Kounenou, K., and Siavara, E., 2012, "Core self-evaluation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among Greek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3): 269-286.
- Lent, R. W., Brown, S. D., and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Flores, L. Y., and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14-27.
- Marko, K. W., and Savickas, M. L., 1998, "Effectiveness of a career time perspective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1): 106-119.
- McWhirter, E. H., Torres, D. M., Salgado, S., and Valdez, M., 2007, "Perceived barriers and postsecondary plans in Mexican American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119-138.
- Miranda, A. O., and Umhoefer, D. L., 1998. "Acculturation, language use, and demographic variables as predictors of the career self efficacy of latino career counseling cli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6(1): 39-51.
- Morse, N. C., and Weiss, R. S., 1968, *The Function and Meaning of Work and The Job. Vocational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Outlaw, F. H., 1993, "Stress and coping: The influence of racism the cognitive appraisal processing of African American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14(4): 399-409.
- Pierson, J., 2003, Tackling Social Exclusion. New York: Routledge.
- Porfeli, E. J., and Lee, B., 2012, "Career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2012(134): 11-22.
-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and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 Qin, D. B., Way, N., and Rana, M., 2008, "The 'model minority' and their discontent: Examining peer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of Chinese American immigrant youth",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8(121): 27-42.
- Rojewski, J. W., and Kim, H., 2003, "Career choice patterns and behavior of work-bound youth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2): 89-108.
- Portes, A., and Rumbaut, R. G., 200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Univ of California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and Schoenbach.,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1004-1018,
- Sam, D. L., Vedder, P., Liebkind, K., Neto, F., and Virta, E., 2008,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the paradox of adaptation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2): 138-158.
- Sanders-Phillips, K., 2009, "Racial discrimination: A continuum of violence exposure for children of color",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2(2): 174-195.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r, J. P., and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8-298.
- Skorikov, V., and Patton, W. A., 2007, Career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ense Publishers.
- Strauser, D. R., Lustig, D. C., and Çiftçi, A., 2008, "Psychological well-being: Its relation to work personalit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though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2(1): 21-35.
- Stephan, W. G., and Stephan, C. W.,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23-45.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Super, D. E., Savickas, M. L., and Super, C. M.,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1(1): 121-178.
- Turner, J. C., Brown, R. J., and Tajfel, H., 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favou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2): 187-204.
- Wallace-Broscious, A., Serafica, F. C., and Osipow, S. H., 1994,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Relationships to self-concept and identity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1): 127-149.
- Wanberg, C. R., and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Watts, A. G., 2001, "Career guidance and social exclusion: A cautionary tal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9(2): 157-176.
- WHO, 2014, "Management of substance abuse research", www.who.int/substance_abuse/research_tools/translation/en/index.html.
- Yoo, H. C., Steger, M. F., and Lee, R. M., 2010, "Validation of the subtle and blatant racism scale for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ABR-A²)",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3): 323-334.

The Factors Affecting Vocational Identity

: Comparing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and Non-Immigrant Adolescents(Korean parents family)

Ryou, Bee (Sungkyunkwan University) Kim, Kihyun (Sungkyunkwan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of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is important element for their Korea social adjustment and reduction of social exclusion. Especially, vocational identity is considered significantly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nd levels of discrimination, depression, self-esteem on vocational identity by comparing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and non-Immigrant adolescents (Korean parents family: non poor family or poor famil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pression level of immigrant adolescents is higher than non poor family adolescents and their self-esteem level is lower than non poor family adolescents by means analysis. second, The path analysis and multi 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by perceived immigrant adolescents had direct influence on vocational identity and also mediated depression, self-esteem as indirect influence. But non poor family adolescents and poor family adolescents showed that their degree of discrimination had only indirect influence on vocational identity as mediation of depression, self-esteem. The result of analysis were used to discuss theoretical, practical implication for career development of Korea immigrant adolescents.

Key words: Korea immigrant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vocatioanl identity, discrimination, depression, self-esteem

[논문 접수일 : 14. 07. 31, 심사일 : 14. 09. 01. 게재 확정일 : 14. 10. 03]